

이번에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백제 데이터베이스 쇼는 지난해 (주)충남저널사가 구축한 '백제문화종합정보'를 활용 충남 개도 100주년에 즈음하여 충남지역의 대표적 문화인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기구축된 하이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충남도내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아울러 정보세계(인터넷 등) 접촉기회가 적은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하이텔을 통한 정보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장차 앞으로 충남지역의 주역이 될 도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치뤄진 뜻깊은 행사였다.〈편집자〉

개도 100주년 기념 백제 데이터베이스 쇼

충남도가 개도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으로 추진중인 기념사업 중 대부분의 행사가 일반 도민(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인 행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이 지나온 100년을 돌아보고 21세기 충남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에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참여의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번 행사를 열게 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세계 접촉의 기회가 적은 충남권 청소년들에게 직접 정보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백제의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와 첨단과학정보문화를 접목시켜 청소년 및 충남도민들에게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백제의 후예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의 를 장이 되었다.

이번행사의 개요로는 현재 하이텔(01410) 정보세계에 백제문화종합정보와 충남북지역정보가 일반 메뉴로 서비스 중인 것을 시연하였으며, 또한 행사장에 대형 멀티미디어와 100여대의 컴퓨터, 하이텔 단말기, 노트북 등을 설치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동시에 백제문화종합정보세계에 들어가 백제의 역사, 문화, 유물, 유적, 관광 등 백제의 모든 것에 대해 검색할 수 있게 하였고, 멀티비전을 통해 백제문화 CD를 상영,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충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영상홍보자료를 멀티미디어로 상영, 청소년들에게 지역사랑 정신을 함양시킨 자리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백제 데이터베이스 쇼를 직접 준비한 충남저널사의 이창수 부장을 만나 백제 데이터베이스 쇼에 대한 의의와 행사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Q 이번 충남 개도 100주년을 맞이하

여 백제 데이터베이스 쇼를 주최하게 된 동기는 무었입니까.

A 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1백년 즉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A1 개도 1백주년에 대한 의미와 충남뿌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것으로 아는데 도청이나, 천안시의 지원은 어느정도였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의 후원업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A 자치단체의 지원은 행사 전체규모에 비해 아주 미진한 편이었습니다. 일반 기업체의 후원 역시 경기침체와 중복되는 후원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각 업체의 후원규모 역시 팜플렛 제작비 정도를 벗어나지 모했고, 관련 공무원들의 정보마인드 부족도 지원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Q 이번 행사가 처음 주최하셨다고 하는데 행사를 주관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었입니까?

A 가장 어려웠던 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의 전달 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주 대상층인 청소년들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쇼의 개최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음을 느꼈죠! 그래서 상업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행사재원 조달도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입니다.

Q 이번 행사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청소년들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A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백제를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에게 백제의 실체를 알리고 백제의 역사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시키기 위해 기획된 행사였기 때문에 상업적인 면을 배제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외면당하는 우리의 역사를 컴퓨터라는 과학문명에 접목시켜 청소년들에게 접근 시킨다는

취재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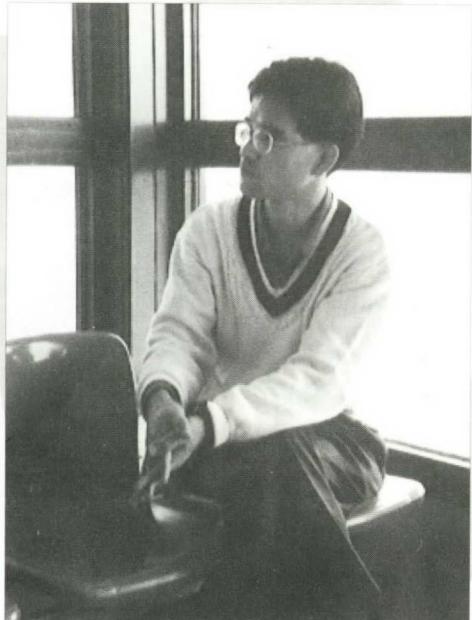
것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충남의 정보 마인드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서울 등 중앙의 정보마인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지역의 정보마인드 부족은 단순히 지역적인 격차가 아닌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책의 제시와 투자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Q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A

정보통신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백제 데이터베이스 쇼의 경우 상당한 관심과 반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백제문화 정보 사냥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백제문화의 재인식이라는 차원에서 행사를 본래 취지가 충분히 발휘 되었다고 봅니다.

성은 얼마 있으며, 여건만 허락한다면 매년 주최 하실 생각이십니까?

A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무한한 가능성과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연례행사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시·군 단위로 순회해서 행사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Q

이번 행사를 주최하셨는데 주최자 입장에서 이 행사가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A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면에서 충남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했다는 것에 의미를 찾고 있으며 당초 기획목표에 비해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행사를 시점으로 해서 충남의 가능

지역의 정보문화가 열악한 실정에서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등의 기관에서 지역의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배려가 절실히 합니다. 충남지역의 경우 충남저널사에서는 어떤 단체나 기관과도 공동으로 지역에서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다. DC